5·18묘지서 주먹밥 나눔행사…유족들 고령화로 참가 줄어

5·18기념식 이모저모

지역·세대 뛰어넘어 화합
오월 어머니합창단 눈길
민주묘지 주변 곳곳 집회 여전

○… 5·18민주화운동 42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매년 좌석을 가득 채우던 흰색 소복을 입은 5·18 유가족들의 모습이 확연히 줄었다.

이에 대해 유족회 회원들은 고령화로 인해 몸이 아파 참가하지 못하거나 한 두명 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유족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기념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일부 회원들은 참석을 꺼렸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최근 유족회 내부의 내홍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좋지 못해도 자식을 먼저 보낸 유족들의 발길은 막을 수는 없었다. 기념식이 시작하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 이미 일부 어머니들은 기념식장에 들어와 자리를 메웠다.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쟁하다 숨진 문재학(당시 17세·광주상고 1학년)열사 어머니인 김길자(83)씨는 땡볕에 속이 울렁거림을 호소하며 잔디밭에 눕기까지 했지만, 기념식 시작 전 까지 119대원들의 치료를 받고 기념식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기념식이 끝난 11시께, 민주의 문 인근 도로에서는 고소한 주먹밥 향기가 피어올랐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주먹밥 나눔 행사를 열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이곳에는 1980년 당시 나눔·연대의 상징이었던 주먹밥을 맛보려는 100여명 참배객들이 몰려들어 줄이 길게 이어졌다.

주먹밥과 김치, 단무지, 고깃국을 받아든 참배객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배객들은 "자신도 시위 현장에 있었다", "당시 자식을 여럿 잃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이야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를 보듬었다.

김봉태(62·남구 진월동)씨가 "주먹밥을 먹으니 1980년 당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위에 뛰어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자, 옆에 앉았던 참배객이 "우리 광주 시민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느냐"며 막걸리를 한 잔 건넸다.

○…기념식 1부 공연인 추모공연에서 오월어머니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오월의 노래'가 눈길을 끌었다.

'오월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담은 영상이 이지훈 배우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1980년 5월 사적지를 둘러보고 묘지에 도착하는 것에서 마무리 되면서 실제 택시에서 내린 이씨와 김 관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이후 김 관장과 같이 검은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갖춰 입은 14명의 오월어머니들은 4명의 리틀엔젤스예술단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오월을 노래했다.

오월어머니들은 1980년 광주에서 5월을 겪은 점에서, 리틀엔젤스예술단 어린이들은 서울지역으로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함께 한것이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오월의 정신을 이어준다는 점에서다.

기념식 후 리틀엔젤스예술단은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기념식을 빠져 나가는 참배객들에게도 인사를 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겼다.

뮤지컬 배우와 함께 부르는 '오월의 노래' 18일 오전 열린 '제42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뮤지컬 배우 이지훈과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오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5·18민주묘지 인근에서는 기념식 전부터 각종 집회가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됐다.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는 보수·진보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중순에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사전에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오사모)가 기념식 당일 정문 앞 집회 신고를 했지만, 10여m떨어진 삼거리 인도쪽에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내는 바람에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보수단체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재산을 몰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오사모와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대는 "5·18 추모를 해야 하는 기념식 당일 이래도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큰 충돌은 없었다.

맞불 집회 뿐 아니라 행사장 입구인 민주의 문 밖에서는 각종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매끄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 1인시위자들을 저지하던 경찰과 가끔 마찰이 빚어져 참배하러 온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에도 입원비 지원 필요"

정부, 생활치료센터 이달 종료
23일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
광주 901명·전남 1209명 확진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입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다"며 "안착기에 가더라도 (지원을) 좀 더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현재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감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하고,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를 시행한다.

안착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정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

박 반장은 "현재 무증상·경증 환자는 외래진료센터 등에서 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경증 치료는 대면 진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는 광주 901명, 전남 1209명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광주는 5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은 순천 210명, 목포 128명, 여수 121명, 광양 119명 등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전날(3만5117명)보다 3765명 줄어든 3만 1352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3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1일(4만3910명)보다 1만2558명, 2주 전인 4일(4만9055명)보다 1만7703명 각각 감소했다. 또 수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 지난 2월 2일(2만267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시, 산하기관장 공모 논란 속 공모 절차도 무시

시의회 추천 인사 공문 보내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회의

광주시가 민선7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산하기관장 공모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모 절차까지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교통문화연수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장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임원추천위는 시장 추천 인사 2명, 이사장 추천 인사 2명,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시의회가 추천 인사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광주시는 서둘러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채용계획을 결정, 공고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추천 인사 3명을 구도로만 집행부(광주시)에 통보했을 뿐 추천 인사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의회가 공문을 보내야만 완료되는데, 구도로 통보한 인사들에게 광주시가 전화해 회의를 진행한 뒤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실상 채용공고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바쁜지, 정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뒤늦게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 공문을 빨리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모가 그대로 진행될지, 다시 임원추천위를 열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추위가 정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돼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공모를 계속 진행할지, 중단하고 다시 임추위를 열지를 오늘중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관가에서는 잔여 임기를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임기 3년의 산하기관장을 공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광주시에서 매년 14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수종사자 교육훈련, 교통안전 시민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원장을 포함 1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